

#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난호이어서-

두리원 대 표 김 해 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 11. 피가 맑으면 만병을 다스린다

### 10. 머리털에도 납 성분이 나온다

매스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폴리스에서 납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프로폴리스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러한 발표가 있자 프로폴리스를 먹어도 괜찮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문의해 온 사람들도 몇 사람이나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개중에는 먹지 않고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여긴다.

납은 중금속 물질로써 체내에 들어가면 배출도 잘 되지 않는 물질인데 어찌해서 프로폴리스에 들어 있을까? 하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미주쪽에서는 더워서 아스팔트가 녹을 때 간혹 얼빠진 벌들(실지는 없음) 가운데는 폴타르를 왁진으로 오인하고 갖고 오는 벌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민간 양봉인으로부터 들은 바 있다. 그렇다고 보면 납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도 있다.

국산 프로폴리스에는 납 성분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 누구의 머리카락이든 머리카락 속에는 납 성분이 들어 있다. 가장 오염되지 않는 북극의 얼음 속에도 0.20 $\mu\text{g}/1\text{kg}$ 이나 들어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펭귄 몸에도 납 성분은 검출된다. 납이 몸에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극소량은 도리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발표한 한국○○○보호원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발표했을까?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동일한 사실들이 간혹 있다.

매스컴을 타야 그러한 기관이 있다는 것도 쉽게 알려질 수 있고, 크게 발표됨으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표시도 된다.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프로폴리스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수치를 갖고 발표 했다면 프로폴리스를 취급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이든 강자에게는 약해도 약자에게는 강하다. 그 중에서도 건강업체가 더욱 약하다. 건강식품은 아무리 쳐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동네 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1~2번은 꼭 매스컴을 탄다. 방송에 나올 때는 좋은 쪽이

아니고 언제나 나쁜 쪽이다. 여유 있는 부유층에서는 국내산 건강보조식품은 아예 먹지 않고 외국산 건강식품만 찾게되는 것도 이런 원인 때문이다.

일부 프로폴리스 제품에서 검출된 1일 용량의 납 성분은 27.5~76 $\mu\text{g}$ 이었다. 미국식품의약품(FAD)에서 1일 납 섭취 허용량은 성인이 76 $\mu\text{g}$ 이다. 이 수치보다 더 낮았다.

10년전(1989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성인 머리카락에 들어 있는 납 성분은 0.02~23.42ppm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프로폴리스에 들어 있는 납 성분은 염려 안해도 되는 것이지만, 해가 크다는 쪽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프로폴리스 붐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기에 올라 오는 싸까지 꺾이는 격이 되었다.

프로폴리스에는 청혈작용이 있어서 몸속의 중금속 물질을 해독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가 되는 물질은 결코 아니다.

## 12. 자연의학과 민간요법

### 1.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없다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교단도 있다.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단측에서는 그러한 교단을 이단으로 보았던 때도 있었다. 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디에서도 융합이 되지 못하고, 종교계에서는 외로운 서러움을 겪는다.

이것은 종교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계에서도 동일하다. 교과서적인 학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경시와 질타가 따른다.

필자의 첫 저서였던 『건강으로 가는 길』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 공직에 계시던 의학박사에게 부탁하였더니 “공직에 있는 내가 썼을 때는 여러 곳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상품을 겸한 소책자를 낼 때는 중국인 S 한의사의 추천서를 받았는데 얼마 지난 뒤에 자신의 추천서를 삭제해 주기를 원했다. 대신 미국에 있는 동료 중국인 한의사의 추천서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이 유는 국내 한의사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요인이라고 했다. 미국에 있는 의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분의 뜻이었다.

이러한 일은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학이



봄을 타고 있는 일본에도 있는 일이다. 미조쿠찌 의학박사는 자신이 암 말기 때 프로폴리스를 사용해서 고침을 받고, 자신의 재산을 회사해 가면서 프로폴리스를 선전했다. 그때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선전하면 많은 의사들이 나를 비난하게 된다. 그들이 극단적으로 의사면허를 반납하라 하고, 박사학위를 취소시킨다고 해도 내 나이 70세가 되므로 아무 두려움이 없으며 그들의 요구가 그러면 그들의 요구까지 들어주겠다”고 할 때 그는 정말 용기 있고, 소신을 갖고 있는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지 그는 많은 돈을 들여 프로폴리스를 구입하여 백혈병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 급성이나 수술할 병들은 현대의학이 잘 고쳐내지만, 저항력이 떨어져 생겨난 만성병들은 쉽게 고쳐내지 못한다. 여기에 자연의학을 연구한 의사가 치료를 해 준다면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빠른 시일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의 와타나베 의학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의학 연구소에 입원을 하면 하루 3끼를 주는 것이 아니고, 2식만 준다. 등심이나 삼겹살 같은 고기는 구경할 수도 없다. 공급되는 것은 된장국에 해조류, 버섯, 두부가 곁들인 찬이 전부이고, 밥은 잡곡밥이다. 간간이 주는 녹즙은 찌꺼기는 버리고, 물만 짜주는 녹즙이 아니고, 찌꺼기까지 다 먹도록 만든 녹즙이다. 그리고 운동과 찜질요법이 치료의 전부이다. 약이나 주사는 일절 주지 않는 병원이다. 그런데도 수 년전 하루 입원료가 우리 나라 돈으로 20만원이다. 여기에 입원을 하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우리 나라 명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의사가 없다. 자연 의학을 연구하려고 하면 일어만이 아니고, 영어나 독어 중 어느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의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영어나 독일어 서적을 번역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 있다면 그 책을 번역한 일본어 책을 다시 번역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경제 소득 및 지식 수준까지 높은 일본에서는 부작용이 많은 합성의약품을 필 수 있는 한 복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신 찾는 것이 자연물질이다. 봉산물 소비는 세계에서 최고이고, 봉침술도 제일 앞서 있다. 어디 그것 뿐인가. 전자나 자석에 의한 치료기구도 세계 첨단을 걷고 있다.

브라질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가공해서 수출하는 프로폴리스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세계에서 장수 민족을 꼽는다면 일본이고, 노인층에서 성인병이 가장 적은 민족도 일본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출발해도 결코 늦지 않다. 현재 여러 의과대학에서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들은 우수한 인재들이다. 그들 가운데 0.1%만이라도 자연의학을 연구하여 준다면 많은 성인병을 줄일 수 있고, 획기적인 자연 의약품을 개발해 낼 수 있다.

한의학에서도 무시하였던 것 가운데서도 뛰어난 효

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을 뿐 아니라, 식생활 개선 하나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자연의학자가 있을 때 국민을 못 속인다.

어떤 학자가 엉터리 학설을 발표해도 그것을 논박해서 제압할 수 없을 때는 그 엉터리 학설도 정설이 되고 만다.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을 것을 주장해도 그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국민은 속게 되고, 업체에는 큰 이익만 가져다 준다.

이러한 일들은 수 년전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껌질을 벗길 수 없는 “꽃가루의 껌질을 벗겨야만 독성을 갖고 있는 알레르기 물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 이 학설 때문에 국내에 많은 양봉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스웨덴 샬넬 회사에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준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었다. 양봉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 전문 학자들에게 문의하다가 보니, 결국 국가적인 망신만 특특히 당하는 꼴이 되었다.

9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녹즙붐이 일고부터 몇 십마타 녹즙기가 있을 정도로 녹즙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녹즙에 대한 지식은 못 가지고 있다. 녹즙을 잘 때 남은 찌꺼기는 버린다. 찌꺼기에는 농약과 중금속의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즙만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선전되어 왔다. 녹즙기에는 중금속이나 농약을 감지해 낼 수 있는 센서(Sensor)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해도 쉽게 분리해 낼 수 없다. 그런데 녹즙기로 어떻게 분류해 낼 수 있던 말인가?

녹즙기에는 비타민은 빠져 나올 수 있어도 장(腸)을 운동시켜 주는 섬유질과 생체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미네랄은 모두 찌꺼기 속에 남게 된다. 찌꺼기를 먹으라고 하면 녹즙기가 안 팔리기 때문에 생산회사에서는 녹즙만 좋은 것으로 선전해 왔다. 회사에서는 알파한 상흔을 갖고 수년간 기만해 왔지만, 그것을 논박하는 글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다. 이 계통의 전문학자가 국내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엉터리 주장은 퍼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봄을 탈 프로폴리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내산 프로폴리스는 효과 없고, 벌이 강하고 오염이 되지 않는 밀립지역에서 생산된 프로폴리스가 더욱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국내에서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일본이 그런 봄을 타고 있는 실정인데 국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독자들 가운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대학 교단에 서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은 100명이 되어도 지명도 있는 대학교수 한 사람 힘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현실만이 아니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의사나 학자가 이 계통에 심취하면 주위에서 받아야 할 압력도 크겠지만, 10년, 20년의 지식이 축적되면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이 방면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의학도가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한다.

### 3. 무좀에는 프로폴리스보다 식초 뜸질

프로폴리스가 무좀에 좋다는 문헌도 읽어 보았고, 무좀을 고쳤다는 봉우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았다. 필자는 며칠만 사용하면 문제점이 나타나 증도에서 포기하곤 했다.

20대에 발병한 무좀을 30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다. 따갑거나 아픔이라도 있으면 열성을 갖고 치료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땀이라도 나면 조금 가려운 증세가 있고, 피부의 각질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생활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무좀에 특효약이 있으면 노벨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생명과는 무관해도 생활에 불편을 가져다 주는 질병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무좀을 곰팡이의 일종인 백선균에 의해 발병되는 병이다. 이 곰팡이는 일반 세균보다 클 뿐 아니라 강하면서도 수십배나 가지고 있어서 잘 죽지도 않는다. 약을 바르면 세균들이 다 죽고, 곧 낫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다. 온도와 습도만 적합하면 언제나 재발하는 것이 무좀이다.

무좀이 있는 부위에 프로폴리스를 바르면 그 부위가 건조해지면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4~5일 바르면 그 주위가 못건널 정도로 가렵다. 시원하게 굽다 보면 피가 나올 정도로 굽게 된다. 3번을 시도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무좀에 프로폴리스를 바르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

무좀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무좀 있는 부위를 식초에 담그는 치료법이다. 식초는 합성 식초보다 발효식초가 좋다. 발효식초는 4~5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탈 필요가 없다. 식초를 40℃ 정도로 따뜻하게 한 뒤 발을 20~30분간 담그면 터실터실한 각질들은 벗겨진다. 이렇게 20~30일간 실시하면 가벼운 무좀은 쉽게 낫는다. 그것이 쉬우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 무좀이 있는 부위가 가려우면 식초에 담근다. 한번 하고 나면 20일 정도는 가려움을 못 느끼는 생활을 한다. 그때까지 짓고 있다가 가려움이 시작되면 다시 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이것마저 귀찮아서 목욕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목욕탕마다 소금을 비치해 둔다. 탕에서 나와 옷 입기 전 양치질 할 정도의 소금을 손바닥에 놓고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그 소금을 가지고 무좀이 있는 부위에다 문질러 준다. 3~4일마다 실시하면 균이 잠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목욕탕에 가서 너 나할 것 없이 소금을 사용하면 필자로서는 목욕탕 주인에게 미안하다. 그대신 물만 조금 절약해 주면 물값에 비하면 소금값은 아무것도 아니다.

필자는 수건을 헹글 때 더운 물에 헹구지 않는다. 거

기에는 외화가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찬물에 헹군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대야에 물을 넘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있다. 하나를 절약해 주고 사용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 4. 항생성분을 갖고 있는 프로폴리스와 여성초

프로폴리스와 여성초는 모두 강한 자연 항생성분을 가지고 있다. 프로폴리스는 벌통 안에서 생산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지만 여성초는 재배되는 다년생 물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책에는 야생 여성초가 좋다고 했고, 울릉도나 제주도에서 습한 지역에 생산된다고 했지만, 야생 여성초는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와 여성초에 대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필자가 모두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폴리스를 알게 된지는 30년이 되었지만, 직접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12년이 되었다. 여성초를 알게 된 것은 수년밖에 안되지만, 시골에 농장이 있어서 1,500평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국내산을 사용했을 때 책 내용들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면 그 책을 쓴 저자의 나라보다 우리나라 생산품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수개국의 프로폴리스에 관한 서적과 논문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산 프로폴리스를 취급하였던 황규섭(구합산양병원) 원장에 의하면 중국산은 국내산 효력에 비하여 3분의 1도 못 미치므로 사용하려고 하면 국내산을 써야 한다는 말을 수차 들었을 때 필자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다.

프로폴리스의 주원료는 나무의 진액물질이다. 진액은 기후의 토양, 식물에 따라 성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나무가 자라는 곳에 유기질 함량이 풍부하고 다양한 성분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다면 메마른 토양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 농가들이 딸감을 하기 위해 산에 안 올라간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산마다 낙엽들이 우겨져 있어서 산지 토양은 비옥해져 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수준은 70년대 초 우리의 생활상과 비슷하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산야는 황폐화 되어 있었고, 토양은 메말라 있어서 유기질 성분은 극소량이 들어 있다. 지금 우리의 토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 중국의 프로폴리스가 우리 나라 것보다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여성초에서도 적용된다. 원료가 좋을 때 제품이 좋을 수 있다. 독성이 강한 제조제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을 때 수확량은 감소된다. 그러나 그 여성초는 어느 여성초보다 효과가 더 있다. 이러한 여성초를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서 설파제 약품의 화학 냄새가 풍긴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더 강한 약리 작용이 나타난다.